

[로스쿨 합격기]

평범해도 정성을 다한다면 꿈은 이루어진다

장희경

- 수원 장안고 졸업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 졸업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I. 들어가며

몇 년 전 고시계에서 합격수기를 보며 많은 도움을 얻었기에, 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면, 대학졸업과 동시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입사하여 2년 2개월간 근무하였고 직장경험을 토대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에는 국제통상 쪽에 관심이 있어 대학시절 내내(사실상 3학년 이후부터) 관련 분야 공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에 입사한 후 법학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커져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고 현재 로스쿨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4개월간의 LEET준비, 3개월간의 면접대비를 통해 느낀 점 및 시행착오, 제 공부 방법(특히 학점, 영어)을 아래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II. 자기 자신을 알라

다들 아시겠지만 로스쿨 입시는 크게 LEET 성적, 학점, 영어가 큰 산맥을 이루고 있고 그 밖에 자기소개서, 면접, 논술, 학벌 등이 좌우합니다. 일단 자신에 대해 객관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정량(LEET, 학점, 영어점수)과 정성(외부활동, 경력, 수상 등)을 종합해서 로스쿨 입시를 치를 만한지 그리고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생각해서 어떤 로스쿨에 지원하는 것이 적합한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으면 로스쿨 입시에서 백전백패하며, 반드시 자신이 쓰려고 하는 로스쿨의 재학생이나 입시를 경험한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정량이 좋아도 잘못된 원서전략으로 불합격을 할 수도 있고 정량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면접이나 정성적인 면으로 뒤집을 수도 있는 게 로스쿨 입시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정량 중 한 부분이 부족하였음에도 면접 및 정성적인 부분으로 합격한 경우라고 생각되어 아래에서는 그 부분에 집중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II. 학점 올리는 평범한 노하우

재학생이라면 당연히 학점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의 경우 대학 졸업식 때 우등생 표창을 받고 졸업하였기에 그 당시로서는 나쁘지 않은 학점이었는데, 사시 인원이 감축되고 로스쿨 체제로 들어서는 현 상황에서는 학점 인플레이가 일어나 로스쿨 준비생들 사이의 학점 평균이 더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은 고고익선으로 최대한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점을 챙길까요? 교수님 수업에 집중하시면서 필기를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필기를 열심히 하는 학생치고 학점 최악인 경우는 제 주위에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필기 열심히 안 해도 학점 잘나오는 친구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필기 잘 안하는 경우 학점 최악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습·복습을 하면 학점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학시절 주로 예습을 열심히 하였는데 예습을 하게 되면 교수님 수업이 더 쉽게 느껴지고 의문점을 미리 갖게 되어 수업시간에 그 의문점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험기간 2주 전 쯤부터 계획을 세워서 복습을 하고 정리를 하며, 중간 기말고사기간에 집중하여 다시 보면 시험을 망치시는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로스쿨에 들어오셔도 학점관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부 시절부터 학점 챙기기 습관을 길러두시면 유익합니다. 셋째로 이건 사

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흥미를 느끼는 과목만을 선택하여 수강하였습니다. 학점을 잘 준다거나 편한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흥미 있는 과목을 선택하였는데 그러다보니 더 열심히 강의를 듣게 되고 시험기간에도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꼭 학점이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개인적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IV. 장기적 관점에서 영어공부방법

전 대학시절 국제 통상 분야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손에 놓지 않고 꾸준히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점수를 만들어서 로스쿨에 지원하려는 분들과는 제 이야기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영어는 로스쿨에 들어와서도, 그리고 로스쿨을 졸업해서도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어린 재학생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시절동안 타임지 동아리 활동을 1년 정도 해오면서 영어독해에 친숙해지려고 노력하였고, 리스닝의 경우 미국드라마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어학실이 보통 있는데 거기서 시간을 정해서 미드를 보았습니다. 또한 영어작문 스터디를 1년간 꾸준히 해서(방법은 EBS 리스닝 스펙셜에 있는 한글번역부분을 보고 영어로 작문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그 당시 토익 WRITING 최고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에도 아침 8시부터 50분간 CNN을 회사에서 수강하여 감을 잃지 않도록 했고 전화영어를 2년 정도 하였습니다. (저도 게을러서 가끔씩은 늦잠을 자곤 했으나 최대한 성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조금씩 영어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실력이 늘어 있었고 따로 토익공부를 안하고 시험을 봤지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경우는 토익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기에 단기간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학원이나 스터디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영어 실력 자체의 향상 또한 동시에 노리는 분들은 (장래 로스쿨 졸업 후 까지 감안해서) 제 방법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는 정직하고 투자한 시간에 비례합니다. 참고로 현재 저는 데일리잉글리시 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는 AP 뉴스를 통해 틈틈이 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위무고시 수석한 이는 언니도 AP 뉴스를 가지고 영어공부를 했었습니다. 해외 뉴스를 들으며 영어공부를 하니 재미가 있기도 합니다.

V. Practice makes perfect - 로스쿨 면접 대비방법

정량이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더라도 면접이나 다른 요소에 의해 충분히 입시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 요소 중 1~2가지가 낮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면접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단 3가지 요소가 다 낮다면 자신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면접은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학교 기출문제를 꼼꼼히 보시고 학교 성향을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대의 경우 시사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경향이 있고 어떤 대학은 대리모 문제 등 고전적인 주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전적인 주제를 내는 대학의 경우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꼼꼼히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독서모임을 통해서 꾸준히 그런 책을 접하고 정리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키워지실 겁니다.

저는 리트시험이 끝난 후 독서모임에 참가하여 일주일에 한권씩 읽었는데 면접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사적인 분야는 평소 신문읽기를 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며 저는 따로 신문을 보지 않고 아젠다넷 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나 시사관련 정리된 책을 2~3권 사다가 읽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방송에서 하는 <100분토론> 이었습니다. 100분토론 사이트에 들어가서 최근 1년치 방송분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동할 때 피곤할 때 들었는데(시간을 절약하느라) 엄청 좋면서 들었던 방송분이 로스쿨 입시에 똑같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법학도인지라 방송통신대학교 기본권강의와 EBS수능강의 <법과 사회>20강을 들었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아니고 로스쿨 면접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기초 배경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리트시험 끝나고는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해서 헤이해지기 쉬운데 이런 강의들을 찾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가만히 노는 것보다는 유용한 것 같습니다. 리트점수가 나왔을 때 저는 제가 노력한 만큼 나오지 않아 엄청 속상했지만 포기하지 말자란 생각으로 면접스터디에 참가하여 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학원 자료를 한 친구한테 받아서 그 자료를 토대로 모의 면접을 보았고 녹음을 하면서 연습하였습니다. 자료 내용 하나에 대해 스터디원 한 명과 의견이 너무 달라서 난상 토론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 내용이 지원했던 타 대학에도 적중하여 나왔고 그 대학에도 무난히 합격했습니다. 면접 대비로 학원에 꼭 다니실 필요는 없어 보이며, 학원 자료 중에 괜찮은 자료가 있다면 구하셔서 연습해 보시는 것은 추천합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이 말은 정말 진리이며 연습한 만큼 면접에서 덜 떨리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면접대비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VI. 리트 및 기타

입시를 겪어보니 봉사활동이나 리더활동 자질구레한 활동들은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합격해서 들어와 보니 오히려 정량 요소 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학사 여부, 어느 대학 출신인지, 사시 1차합격증 여부, 전문가격증 유무이며 면접 또한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잘 썼다고 붙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소들이 가미될 때 자기소개서도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직장경험(중소기업 상대 컨설팅 업무)을 저의 진로와 잘 연결하여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고 로스쿨에 재학 중이었던 아는 사람들에게 첨삭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자기소개서로 점수를 깎아먹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내가 어떤 인재라는 것을 보이는 첫 인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잘 쓴다고 붙는 것은 아니지만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리트의 경우 전 스티디를 조직해서 하루에 모의고사를 1세트씩 풀고 검토하는 식으로 공부하였는데 많은 문제를 푼다고 점수가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웬만한 거, 학원 모의고사 문제, 수능 언어문제, LEET 기출문제 심지어 PSAT(언어, 상황판)까지 다 풀었는데도 저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노력만 무작정 한다고 나오는 시험은 아닌 것 같고 주변에서 보면 원래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식하게 문제만 많이 푸는 방법보다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꼼꼼히 푸는 게 더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와서야 해 봅니다. 부끄럽지만 LEET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저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마음에서입니다.

VII. 직장인이라면

로스쿨 입시에서 학점과 영어가 어느 정도 되고, 리트 기출문제를 시간재고 풀어보니 점수가 괜찮은 분이라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시간 관리를 통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리트가 약하거나 영어가 많이 낮거나 그러시다면 직장생활과 병행해서 합격하는 것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과감히 사직서를 내고 로스쿨 입시에 올인 하였지만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컸습니다. 만약 떨어졌더라도 저는 로스쿨에 대한 확고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준비를 했을 것 같지만, 어쨌든 불합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담과 병행가능성을 잘 따져보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VIII. 마치며

비법학도의 경우 로스쿨에 들어와서 좌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면접이 끝난 뒤 비법학도라면 반드시 선행학습을 철저히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이 방향을 정하여 생각하고 노력한 것은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비슷하게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실히 정성을 다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에게 보상이 옵니다. 저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깨달아 매일매일 수첩에 해야 할 일을 적으며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괜찮은 내용이 있다면 취사선택하여 입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